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타당화 및 적용: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채명옥¹⁾ 임소연²⁾ 지연경³⁾

요약

본 연구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단계에 초점을 둔 권미경·방경숙·김남선 외(2006)의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미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및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미혼여성은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과 수원시 소재한 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과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부모역할 인지 도구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타당도의 경우 선행연구와 같이 일곱 개의 요인이(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돌보기 지식, 반응성, 돌보기 수행능력, 자극제공과 참여, 민감성, 수용성) 추출되었고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 누적변량 또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요인적재량에 따른 요인별 문항 구성에서 선행연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대상인 미혼여성의 부모역할 인지는 아동기 주양육자,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 부모교육 경험 유무, 출산의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제어: 부모역할, 미혼, 여성, 신뢰도, 구성 타당도

I.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들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기술의 범람과 함께 사회윤리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성역할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요즘 부모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가고 있으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인

1) 동남보건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2)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3)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초빙교수

내하고 살아야만 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불행한 결혼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결혼대신 독신과 동거를 택하기도 하며 여러 다른 형태의 가족을 만들고 있는 반면(허영림, 2007), 장영희와 정미라(2006)의 연구결과에서 결혼을 하면 자녀를 꼭 낳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꼭 낳아야 한다’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0.1%로 나타나 아직은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고 본질적인 관계로, 부모는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환경이며, 아동은 부모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에 부모-자녀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듯 과거나 현재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변함 없이 중시되는 과제 중의 하나가 부모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는 일이며, 성공적인 자녀양육은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이고 생동적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Crockenberg, 1981; 문혁준, 2008).

Johnston과 Mash(1989)는 부모역할이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을 과거에는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면서 어린 동생을 돌보거나 조카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현대의 부모들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정옥분·임정하·정순화 외, 2008). 특히, 영아기 어머니들이 여러 가지 교육적 요구를 가지고 있거나 영아 돌보기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권미경, 1995; 이승은·박성연, 2012). Azar(2002)는 특히,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아기에는 양육지식이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데 필요한 일상의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역할에 대한 도구들은 부모역할 영역을 교육, 기본적 욕구, 중재역할(Gilbert & Harris, 1983)로 나누거나 경제적 지원, 자녀학습지도, 사회의 가치관 전달, 훈육, 의논 상대자, 건강 및 영양관리, 자녀보호(박화윤·최재숙·마지순, 2002)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여러 발달단계를 거치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모역할 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권미경(2004)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 중 영유아

단계에 초점을 두고 35문항으로 구성된 부모역할 인지 사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권미경·방경숙·김남선 외(2006)가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신뢰도 검증결과 총 33 문항이 선택되었다. 권미경(2004)의 부모역할 인지 측정도구는 양육환경, 부모의 민감성, 성장발달, 신체 돌보기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권미경·방경숙·김남선 외(2006)의 연구에서는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돌보기 지식, 반응성, 돌보기 수행능력, 자극제공과 참여, 민감성·수용성 일곱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인지를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미경·방경숙·김남선 외(2006)의 부모역할 인지 도구를 영아 어머니인 미혼여성이 아닌 대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한 더욱 확대된 미혼여성으로 대상을 달리 적용하여 대상자가 달라져도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조사하고 있는지, 그 측정하는 내용이 실제로 조사하는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통해 개념적 속성, 신뢰도 및 타당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강주희, 2007; 김조자·김수지·박지원 외, 2002).

또한, 부모역할 관련 선행연구의 일반적, 부모역할 관련 특성으로는 장영희와 정미라(2006)의 예비부모세대인 대학생의 태도분석 연구에서 학교, 학년, 관련과목 수강경험, 결혼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자녀양육의 책임, 자녀 양육 시 주요고려사항 등을 포함하였고, 허영림(2007)의 대학생의 예비 부모됨에 관한 연구에서 결혼생각, 자녀들 생각, 예비부모지식 획득 기회, 예비부모교육 필요성을, 박화윤 등(2002)의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연구에서 성별, 자녀양육의 책임, 자녀양육 지식의 정보원, 자녀양육에 대한 예비교육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직장인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연령, 직업, 출생순위, 가족형태, 양육의 책임소재, 아동기 주 양육자, 부모의 부부관계 인식,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 부모교육 경험, 부모교육 필요성, 결혼의도, 출산의도에 따른 미혼여성의 부모역할 인지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미혼여성이 보다 준비된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권미경, 방경숙, 김남선 외(2006)의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미혼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 따라 부모역할 인지 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기관 대학교에서 IRB 승인(IRB승인번호 2011-6-3)을 받고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인 미혼여성은 편의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수원시 소재한 3년제 대학의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과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 내 대학원과 평생교육원에 재학 중인 직장인 여성을 대상으로 각 기관 책임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직접 방문하여 모집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응답을 거부해도 어떤 피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다는 서명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표본 수는 문항 당 3명에서 5명의 표본 수이면 요인분석에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이민식·김중술, 1996), 본 연구도구는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1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미비한 경우를 제외한 20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미혼여성의 평균 연령은 25.1세($SD=4.47$)였고 직업은 대학생 51% 및 대학원생이 2.9%, 직업이 있는 경우가 42.6%의 순이었다. 출생순위는 첫째 44.1%와 둘째 42.2%로 비슷한 비율이었고 셋째 이상과 외동은 각각 6.9%로 같았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역할 인지 도구는 권미경(2004)이 개발한 구조화된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권미경·방경숙·김남선 외(2006)가 수정한 부모역할 인지 도구로, 돌보기 수행 능력 9문항(예: 혼자서 아기목욕 시키기), 반응성 6문항(예: 아기와 잦은 피부접촉 하기), 돌보기 지식(아기의 예방접종 스케줄 인지), 민감성(예: 아기의 행동이나 정서에 민감한 반응 보이기),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예: 아기의 연영에 맞는 장남감 제공) 각 4 문항, 수용성(예: 다른 사람 앞에서 아기를 야단치지 않기), 자극제공과 참여(부모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아기에게 말 건네기) 각 3문항의 7개 하위요인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을 다시 수정, 보완하고 ‘매우 중요하다’ 5점, ‘중요하다’ 4점, ‘그저 그렇다’ 3점, ‘중요하지 않다’ 2점, ‘매우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 된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권미경·방

경숙·김남선 외(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직업, 출생순위를, 부모역할 관련 특성은 부모역할 관련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던 요인을 중심으로 미혼여성에 해당되는 문항을 선별한 결과, 가족형태(핵가족, 확대가족, 한부모 가족, 기타), 양육의 책임소재(부모, 어머니, 아버지), 아동기 주양육자(부모, 어머니, 아버지, 기타), 부모의 부부관계 인식(친밀하다, 그저 그렇다, 친밀하지 않다),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친밀하다, 그저 그렇다, 친밀하지 않다), 부모교육 경험(있다, 없다), 부모교육 필요성(있다, 없다), 결혼의도(있다, 없다, 모르겠다), 출산의도(있다, 없다, 모르겠다) 등 9문항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권미경·방경숙·김남선 외, 2006; 박화윤·최재숙·마지순, 2002; 허영립, 2007).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에 대해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고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역할 관련 특성은 빈도분석, 권미경·방경숙·김남선 외(2006)의 척도의 하위요인 총점과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하위요인의 총점은 one sample *t*-test로 비교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에 대한 차이 검증은 *t*-test와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é의 사후검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부모역할 관련 특성

대상자의 부모역할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 형태에서 핵가족이 89.7%로 가장 많았고, 양육의 책임소재는 '부모 모두에게 있다'는 응답이 74.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아동기 주양육자를 묻는 질문에는 부모 60.8%, 어머니 34.3%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 관계와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에서는 '친밀하다'가 각각 73.5%, 80.4%였고, 부모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49%였으며,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8.5%였다. 결혼의도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는 각각 2%, 11.3%였으며,

출산의도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5.4%, 21.1%였다.

2. 부모역할 인지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총점은 139.03점이었고, 전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2였다. 하위요인의 문항 평균점수는 돌보기 수행능력 4.05점($SD=.51$), 반응성 4.45점($SD=.45$), 돌보기 지식 4.68점($SD=.38$), 민감성 3.80점($SD=.65$), 발달을 위한 환경 조직 4.44점($SD=.44$), 수용성 3.74점($SD=.80$), 자극제공과 참여 4.34점($SD=.48$)이었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돌보기 수행능력 .88, 반응성 .83, 돌보기 지식 .78, 민감성 .74,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75, 수용성 .76, 자극제공과 참여 .61로,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는 .60 이상이면 받아들여지는(정충영·최이규, 1997) 기준에 따라 본 연구의 도구는 전체적으로, 하위요인별로 내적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계수

요인	문항수	범위	요인별 $M \pm SD$ (문항별 $M \pm SD$)	신뢰도
부모역할 인지 전체도구	33	33-165	139.03± 12.06 (4.21± .37)	.92
1 돌보기 수행능력	9	9-45	36.45± 4.56 (4.05± .51)	.88
2 반응성	6	6-30	26.72± 2.69 (4.45± .45)	.83
3 돌보기 지식	4	4-20	18.71± 1.52 (4.68± .38)	.78
4 민감성	4	4-20	15.18± 2.60 (3.80± .65)	.74
5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4	4-20	17.74± 1.76 (4.44± .44)	.75
6 수용성	3	3-15	11.22± 2.39 (3.74± .80)	.76
7 자극제공과 참여	3	3-15	13.02± 1.45 (4.34± .48)	.61

(N=204)

3. 구성타당도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요인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지수와 Bartlett의 구상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을 실시한 결과, KMO 측도 0.884, Bartlett의 구상 검정치 3277.713 ($p < .001$)로 KMO 값이 0.90이면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으로 상당히 좋고, 0.70 이상이면 적당한 표본이라고 판단한다(Tabachnick & Fidell, 2012)는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상관행렬에서 문항 간 상관관계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추출을 위해 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orthogonal varimax 회전 방식을 이용한 결과 1 이상의 고유값(eigenvalue)을 가진 돌보기 수행능력, 반응성, 돌보기 지식, 민감성,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수용성, 자극제공과 참여 일곱 개의 요인으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추출되었다. 하위요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돌보기 수행능력이 9.714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 반응성은 3.799, 돌보기 지식은 1.788, 민감성 1.556,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1.296, 수용성 1.264, 자극제공과 참여 1.141로 나타났다. 일곱 개 요인들에 의한 설명 분산의 백분율은 돌보기 수행능력이 29.44%, 반응성 11.51%, 돌보기 지식 5.42%, 민감성 4.71%,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3.93%, 수용성 3.83%, 자극제공과 참여 3.46%로 하위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62.3%를 설명하여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 누적변량은 62.3%였다.

또한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각 문항과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주는 값으로 0.3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데(이은옥·임난영·박현애, 1998), 33문항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2 참조).

한편, 일곱 개 하위요인 중 유일하게 선행 연구와 같은 문항 구성을 나타낸 수용성 요인의 총점의 평균을 ($M=11.22, SD=2.39$) 권미경·방경숙·김남선 외(2006)의 연구 결과와 ($M=12.77, SD=1.49$) one sample t -test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9.293, p < .001$).

〈표 2〉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요인분석

(N=204)

문항	돌보기 수행 능력	반응성	돌보기 지식	민감성	발달을 위한 환경 조직	수용성	자극 제공과 참여
1 아기 놀이 환경의 안전성					.417		
2 아기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 제공					.829		
3 아기의 연령에 맞는 학습도구 제공					.762		
4 집안에 아기를 위한 놀이 장소 마련					.641		
5 아기의 병원 정기진단 시행			.646				
6 아버지의 매일 육아 참여							.730
7 아기가 우는 이유 인식	.402						
8 아기의 예방접종 스케줄 인지			.794				

(표 2 계속)

문항	돌보기 수행 능력	반응성	돌보기 지식	민감성	발달을 위한 환경 조직	수용성	자극 제공과 참여
9 아기의 비정상적인 증상 인지			.822				
10 아기의 상태 의료진에게 잘 설명함			.703				
11 아기의 성장발달에 대한 지식 갖춤		.474					
12 아기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한 칭찬하기		.808					
13 아기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기		.804					
14 아기와 잦은 피부접촉 하기		.730					
15 아기의 잘못된 행동이나 말에 대한 통제나 주의 주기	.347						
16 하루에 적어도 한번 이상 아기가 부모들과 함께 식사하기		.510					
17 아기에게 능숙하게 젓 먹이기	.730						
18 기저귀 갈기, 손톱 깎기 등 수행	.715						
19 정확한 아기의 체온측정	.702						
20 아기의 옷 갈아입히기	.785						
21 혼자서 아기 목욕시키기	.724						
22 어린이용 책 구입하기	.661						
23 가끔 친척을 방문하거나 초대하기	.629						
24 부모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아기에게 말 건네기							.445
25 부모가 평상 시 아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두고 자주 살펴보기							.564
26 어머니가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책 읽어 주기			.393				
27 아기의 행동이나 정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588				
28 장난감을 사줄 때 부모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난감 구입하기				.761			
29 아기의 새로운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 장난감이 있더라도 새 장난감 마련하기				.710			
30 부모가 행동이나 말에 대한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기		.450					
31 아기가 잘못을 하여도 때리지 않기						.721	
32 아기가 잘못을 하여도 적대감이나 성가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747	
33 다른 사람 앞에서 아기를 야단치지 않기						.797	
고유값	9.714	3.799	1.788	1.556	1.296	1.264	1.141
설명력	29.44	11.51	5.42	4.71	3.93	3.83	3.46
총 누적 비율	29.4	40.9	46.4	51.1	55.0	58.8	62.3

4. 일반적 특성과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차이

연구대상자의 부모역할 인지 전체 도구 총점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서는 아동기 주양육자($F=6.078, p<.001$),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F=3.412, p=.035$), 부모교육 경험 유무($t=-2.822, p=.005$), 출산의도($F=3.152, p=.04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기 주양육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기타의 순으로 부모역할 인지 총점이 높았고,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부모교육 경험이 없고 출산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부모역할 인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에서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돌보기 지식($F=3.190, p=.025$), 수용성($F=3.822, p=.01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돌보기 지식은 20대에서 가장 높고, 수용성은 30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업에 따라서는 반응성($F=5.136, p=.002$), 돌보기 지식($F=8.639, p<.001$), 민감성($F=4.107, p=.007$), 수용성($F=6.11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반응성은 대학원생, 돌보기 지식은 대학생, 민감성은 직장인, 수용성은 기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반응성($F=2.797, p=.041$)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출생순위 셋째 이상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3 참조).

위의 일원분산분석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에 대하여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별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직업에서 직장인이 대학생에 비해 반응성($p=.003$), 민감성($p=.008$), 수용성($p=.001$)이 유의하게 높았고, 돌보기 지식($p<.001$)은 유의하게 낮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차이

		(N=204)									
변수	구분	부모역할 인지		돌보기 수행능력		반응성		돌보기 지식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연령(세)	<20	143.50± 17.67		39.00 ±8.49		28.50 ±2.12		18.50 ±2.12			
	20-29	138.73± 11.51	0.913 (.435)	36.37 ±4.43	1.263 (.288)	26.57 ±2.68	0.816 (.486)	18.83 ±1.44	3.190 (.025)		
	30-39	140.03± 14.06		36.84 ±4.93		27.09 ±2.75		18.18 ±1.70			
	≥40	126.50± 14.84		31.00 ±5.66		28.00 ±1.41		16.50 ±2.12			
직업	대학생 ^a	136.98± 11.06		2.231 (.086)		35.79 ±4.36		1.582 (.195)		26.02 ±2.69	5.136 (.002) b>a
	직장인 ^b	141.32± 11.63	37.17 ±4.44		27.47 ±2.37	18.21 ±1.70					
	대학원생 ^c	138.00± 14.17	36.33 ±4.80		27.50 ±2.26	17.50 ±1.97					
	기타 ^d	141.85± 23.49	37.43 ±7.68		27.14 ±4.30	19.14 ±1.21					
출생순위	첫째	140.14± 12.03	2.148 (.095)	36.83 ±4.30	1.931 (.126)	26.93 ±2.71	2.797 (.041)	18.72 ±1.48	0.531 (.662)		
	둘째	137.76± 11.86		36.07 ±4.86		26.52 ±2.68		18.59 ±1.60			
	셋째이상	144.21± 10.79		38.21 ±4.37		28.00 ±1.88		18.93 ±1.44			
	외동	134.42±		34.57		25.29		19.07			
		13.07		±3.88		±2.76		±1.27			

(표 3 계속)

변수	구분	민감성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수용성		자극제공과 참여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연령(세)	<20	17.00 ±4.24		18.50 ±2.12		7.50 ±2.12		14.50 ±.71	
	20-29	15.03 ±2.65	1.332 (.265)	17.84 ±1.73	2.220 (.087)	11.07 ±2.41	3.822 (.011)	13.04 ±1.37	1.609 (.189)
	30-39	15.76 ±2.21		17.15 ±1.72		12.15 ±2.05		12.85 ±1.79	
	≥40	13.50 ±2.12		16.00 ±2.83		10.00 ±0.00		11.50 ±0.71	
직업	대학생 ^a	14.58 ±2.41		17.95 ±1.71		10.54 ±2.43		12.94 ±1.32	
	직장인 ^b	15.86 ±2.42	4.107 (.007) b>a	17.60 ±1.65	1.873 (.135)	11.92 ±2.14	6.119 (.001) b>a	13.09 ±1.51	0.266 (.850)
	대학원생 ^c	15.17 ±2.71		16.50 ±2.17		11.83 ±1.60		13.17 ±1.72	
	기타 ^d	15.57 ±4.93		17.29 ±2.93		12.00 ±2.83		13.29 ±2.43	
출생순위	첫째	15.10 ±2.76		18.01 ±1.50		11.44 ±2.38		13.10 ±1.40	
	둘째	15.26 ±2.28	0.987 (.400)	17.51 ±1.90	1.527 (.209)	10.88 ±2.39	1.036 (.377)	12.93 ±1.45	1.328 (.266)
	셋째이상	16.00 ±2.22		17.79 ±1.85		11.71 ±2.46		13.57 ±1.40	
	외동	14.36 ±3.56		17.29 ±2.16		11.29 ±2.33		12.57 ±1.74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서는 양육의 책임소재가 민감성($F=5.279, p=.0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버지라고 응답한 경우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아동기 주양육자는 돌보기 수행능력($F=3.203, p=.024$), 반응성($F=7.583, p<.001$), 민감성($F=4.702, p=.003$), 수용성($F=4.299, p=.006$)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아동기 주양육자가 아버지일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부모의 부부관계에서는 수용성($F=4.071, p=.018$)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반응성($F=5.241, p=.006$)과 수용성($F=3.120, p=.046$) 점수가 높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부모교육 경험에서는 돌보기 수행능력($t=-2.270, p=.024$), 반응성($t=-5.874, p<.001$), 돌보기 지식($t=2.968, p=.003$), 민감성($t=-2.047, p=.042$),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t=2.378, p=.018$), 수용성($t=-4.048, p<.001$)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돌보기 수행능력, 반응성, 민감성, 수용성은 높고, 돌보기 지식,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에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t=2.073, p=.039$), 자극제공과 참여($t=2.466, p=.014$)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결혼의도에 따라서는 결혼의도가 없는 경우 돌보기 지식($F=3.373, p=.036$)은 높고,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F=3.227, p=.042$)은 낮은 점수를 나타내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출산의도에 따라서는 수용성($F=4.236, p=.016$) 요인에서 출산의도가 없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표 4 참조).

위의 일원분산분석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에 대하여 전체 척도와 하위요인별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서 양육의 책임소재는 민감성($p=.021$) 요인에서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부모 모두에게 있다고 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부모님 부부관계 인식에서 수용성($p=.019$) 요인은 ‘친밀하다’가 ‘그저 그렇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결혼의도가 있는 경우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p=.042$) 요인에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출산의도에 따라서는 ‘없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대상자보다 수용성($p=.049$)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표 4〉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차이

(N=204)

변수	구분	부모역할 인지		돌보기 수행능력		반응성		돌보기 지식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가족형태	핵가족	138.72 ±11.94		36.33 ±4.64		26.60 ±2.70		18.76 ±1.49	
	대가족	144.60 ±11.87	1.431 (.235)	38.40 ±3.52	1.511 (.213)	28.20 ±2.14	1.741 (.160)	18.20 ±1.86	1.242 (.295)
	한부모가족	133.80 ±15.54		34.40 ±2.88		26.60 ±3.21		18.00 ±1.00	
	기타	138.00 ±0.00		40.00 ±0.00		28.00 ±0.00		20.00 ±0.00	
양육의 책임소재	부모	138.41 ±11.75		36.40 ±4.49		26.55 ±2.70		18.70 ±1.51	
	어머니	139.89 ±12.34	1.199 (.304)	36.21 ±4.49	0.538 (.584)	27.08 ±2.73	1.487 (.229)	18.79 ±1.47	0.186 (.831)
	아버지	143.35 ±14.33		37.64 ±5.53		27.64 ±2.34		18.50 ±1.79	
아동기 주양육자	부모	141.02 ±12.00		36.94 ±4.71		27.34 ±2.38		18.61 ±1.56	
	어머니	136.52 ±11.33	6.078 (.001)	35.79 ±4.26	3.203 (.024)	25.84 ±2.82	7.583 (<.001)	18.89 ±1.44	0.814 (.487)
	아버지	162.00 ±0.00		45.00 ±0.00		30.00 ±0.00		20.00 ±0.00	
	기타	128.44 ±7.53		33.89 ±2.20		24.67 ±3.08		18.44 ±1.51	
부모의 부부관계 인식	친밀하다	138.74 ±11.56		36.51 ±4.42		26.48 ±2.75		18.85 ±1.39	
	그저 그렇다	139.97 ±13.03	0.184 (.832)	36.13 ±4.92	0.214 (.808)	27.48 ±2.27	2.473 (.087)	18.30 ±1.88	2.488 (.086)
	친밀하지 않다	139.00 ±16.46		37.13 ±5.38		26.88 ±3.23		18.38 ±0.92	

(표 4 계속)

변수	구분	부모역할 인지		돌보기 수행능력		반응성		돌보기 지식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	친밀하다	140.06 ±11.57		36.77 ±4.43		26.93 ±2.53		18.78 ±1.44	
	그저그렇다	135.02 ±13.30	3.412 (.035)	35.10 ±4.96	2.150 (.119)	26.00 ±3.03	5.241 (.006)	18.36 ±1.77	1.594 (.206)
	친밀하지 않다	126.00 ±0.00		36.00 ±0.00		20.00 ±0.00		20.00 ±0.00	
부모교육 경험	있다	136.64 ±12.19	-2.822 (.005)	35.72 ±4.45	-2.270 (.024)	25.67 ±2.85	-5.874 (<.001)	19.02 ±1.34	2.968 (.003)
	없다	141.32 ±11.53		37.15 ±4.57		27.73 ±2.09		18.40 ±1.62	
부모교육 필요성	있다	139.19 ±11.97	1.651 (.100)	36.50 ±4.54	1.195 (.233)	26.76 ±2.66	1.554 (.122)	18.72 ±1.51	0.812 (.418)
	없다	127.66 ±15.27		33.33 ±5.51		24.33 ±4.51		18.00 ±2.00	
결혼의도	있다	139.33 ±11.98		36.55 ±4.53		26.68 ±2.68		18.77 ±1.50	
	없다	146.25 ±6.18	1.837 (.162)	38.75 ±3.20	1.281 (.280)	29.00 ±0.82	1.472 (.232)	19.75 ±0.50	3.373 (.036)
	잘모르겠다	135.39 ±12.78		35.30 ±4.88		26.65 ±2.84		18.04 ±1.58	
출산의도	있다	139.83 ±11.85		36.68 ±4.58		26.85 ±2.56		18.73 ±1.54	
	없다	143.00 ±11.03	3.152 (.045)	37.36 ±3.75	1.522 (.221)	27.73 ±3.26	2.533 (.082)	19.45 ±1.21	2.029 (.134)
	잘모르겠다	135.20 ±12.39		35.42 ±4.58		26.00 ±2.89		18.44 ±1.45	

변수	구분	민감성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수용성		자극제공과 참여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가족형태	핵가족	15.15 ±2.52		17.73 ±1.70		11.15 ±2.38		13.00 ±1.45	
	대가족	15.93 ±2.79	1.383 (.249)	18.20 ±1.70	1.820 (.145)	12.20 ±2.14	1.195 (.313)	13.47 ±1.46	1.135 (.336)
	한부모가족	14.60 ±4.39		16.20 ±3.27		11.00 ±3.39		13.00 ±1.22	
	기타	11.00 ±0.00		19.00 ±0.00		9.00 ±0.00		11.00 ±0.00	
양육의 책임소재	부모 ^a	14.87 ±2.49		17.78 ±1.72		11.07 ±2.41		13.05 ±1.41	
	어머니 ^b	15.79 ±2.52	5.279 (.006) a<c	17.66 ±1.88	0.203 (.817)	11.39 ±2.19	1.799 (.168)	12.97 ±1.62	0.070 (.932)
	아버지 ^c	16.86 ±3.18		17.50 ±1.87		12.29 ±2.55		12.93 ±1.49	
아동기 주양육자	부모	15.62 ±2.64		17.78 ±1.76		11.52 ±2.31		13.20 ±1.53	
	어머니	14.60 ±2.37	4.702 (.003)	17.81 ±1.67	2.201 (.089)	10.87 ±2.25	4.299 (.006)	12.73 ±1.30	2.440 (.066)
	아버지	18.00 ±0.00		19.00 ±0.00		15.00 ±0.00		15.00 ±0.00	
	기타	13.22 ±1.99		16.33 ±2.00		9.22 ±3.15		12.67 ±1.00	

(표 4 계속)

변수	구분	민감성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수용성		자극제공과 참여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부모의 부부관계 인식	친밀하다 ^a	15.05 ±2.52		17.89 ±1.63		10.96 ±2.33		13.00 ±1.43	
	그저 그렇다 ^b	15.63 ±2.58	0.926 (.398)	17.37 ±1.97	2.286 (.104)	12.09 ±2.29	4.071 (.018) a<b	12.98 ±1.54	1.046 (.353)
	친밀하지 않다 ^c	14.88 ±3.98		17.00 ±2.39		11.00 ±3.12		13.75 ±1.28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	친밀하다	15.28 ±2.62		17.85 ±1.70		11.34 ±2.38		13.11 ±1.42	
	그저 그렇다	14.77 ±2.52	0.712 (.492)	17.26 ±1.93	1.812 (.166)	10.85 ±2.29	3.120 (.046)	12.69 ±1.56	1.565 (.212)
	친밀하지 않다	14.00 ±0.00		18.00 ±0.00		6.00 ±0.00		12.00 ±0.00	
부모교육 경험	있다	14.80 ±2.82	-2.047 (.042)	18.03 ±1.67	2.378 (.018)	10.55 ±2.36	-4.048 (<.001)	12.85 ±1.42	-1.693 (.092)
	없다	15.54 ±2.31		17.45 ±1.80		11.86 ±2.24		13.19 ±1.46	
부모교육 필요성	있다	15.19 ±2.60	0.790 (.430)	17.77 ±1.74	2.073 (.039)	11.21 ±2.40	-0.086 (.932)	13.05 ±1.43	2.466 (.014)
	없다	14.00 ±2.00		15.67 ±1.53		11.33 ±2.08		11.00 ±2.00	
결혼의도	있다 ^a	15.26 ±2.60		17.85 ±1.66		11.21 ±2.38		13.03 ±1.46	
	없다 ^b	15.00 ±2.94	0.736 (.480)	17.75 ±0.96	3.227 (.042) a>c	12.50 ±2.08	0.636 (.530)	13.50 ±1.00	0.282 (.755)
	잘 모르겠다 ^c	14.57 ±2.56		16.87 ±2.34		11.04 ±2.53		12.91 ±1.47	
출산의도	있다 ^a	15.39 ±2.59		17.78 ±1.67		11.37 ±2.34		13.03 ±1.48	
	없다 ^b	14.91 ±2.70	2.116 (.123)	18.00 ±1.34	0.520 (.595)	12.36 ±2.80	4.236 (.016) b>c	13.18 ±1.47	0.118 (.889)
	잘 모르겠다 ^c	14.49 ±2.53		17.51 ±2.13		10.40 ±2.28		12.95 ±1.36	

IV. 논의

본 연구는 권미경(2004)이 개발한 대학생의 부모역할 인지 측정도구에 대하여 권미경 외(2006)의 영아기 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와 대상자를 달리하여,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구성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내적 일관성 분석을 통한 신뢰도 검증에서, Cronbach's α 가 .92로 권미경(2004)의 연구 .93와 권미경 외(2006)의 연구 .90과 비슷한 결과로서 매우 우수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요인별 신뢰도 비교는 가능하지 않았다.

본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할 위한 요인분석 결과, 돌보기 수행능력, 반응성, 돌보기 지식, 민감성,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수용성, 자극제공과 참여 등의 일곱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62.3%를 설명하였다. 이는 요인들에 의한 설명분산의 누적 백분율이 60% 정도를 설명해 주는 요인까지를 선정한다는 기준(이은옥·임난영·박현애, 1998)을 잘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권미경 외(2006)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곱 개 요인에 의한 설명변량 62.39%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주 성분분석에 의한 요인 적재량 분석 결과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선행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권미경 외(2006)의 연구에서는 돌보기 수행능력 5문항(17, 18, 19, 20, 21), 반응성 5문항(12, 13, 14, 15, 16), 돌보기 지식 5문항(7, 8, 9, 10, 11), 민감성 4문항(27, 28, 29, 30),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6문항(1, 2, 3, 4, 5, 6), 수용성 3문항(31, 32, 33), 자극제공과 참여 5문항(22, 23, 24, 25, 26)으로 요인별 문항이 구성된 도구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돌보기 수행능력 9문항(7, 15, 17, 18, 19, 20, 21, 22, 23), 반응성 6문항(11, 12, 13, 14, 16, 30), 돌보기 지식 4문항(5, 8, 9, 10), 민감성 4문항(26, 27, 28, 29),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4문항(1, 2, 3, 4), 수용성 3문항(31, 32, 33), 자극제공과 참여 3문항(6, 24, 25)으로 수용성 요인 3문항이 동일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인 것 이외에는 요인별 문항 변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면, 권미경 외(2006)의 연구에서는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미 결혼, 분만과 육아를 경험하고 실제적인 부모역할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인지하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대상에서 차이가 있어 하위요인별 문항의 변동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추후 미혼과 기혼여성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일곱 개 하위요인 중 선행연구와 같은 문항 구성을 나타낸 수용성 요인의 총점의 평균을 권미경 외(2006)의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대상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점은 실제로 자녀 양육의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 또한 미혼과 기혼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위영역 간의 점수 차이를 살펴보고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미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시킬 것을 제안한다.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총점은 139.03점으로 권미경 외(2006)의 연구 139.89점보다 다소 낮았다. 하위요인의 문항 평균점수는 권미경 외(2006)의 연구에서 돌보기 수행능력, 발달을 위한 환경 조직, 수용성, 반응성, 돌보기 지식, 민감성, 자극제공과 참여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돌보기 지식, 반응성, 발달을 위한 환경 조직, 자극제공과 참여, 돌보기 수행능력, 민감성, 수용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권미경 외(2006)의 연구가 실제 영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보기 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적인 양육을 하면서 당면하는 문제이거나 고민인 돌보기 수행능력, 발달을 위한 환경 조직, 수용성, 반응성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기본이 되는 돌보기 지식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기혼인 지인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바람직한 양육의 자세와 환경에 해당하는 반응성과 발달을 위한 환경 조직, 자극제공과 참여에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권미경(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민감성, 신체 돌보기, 양육환경, 영아의 성장발달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부모역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미혼여성의 인지가 부족했던 부모역할의 내용 즉, 양육경험을 기반으로 기혼여성 대상의 권미경 외(2006)의 연구에서 강조했던 돌보기 수행능력, 발달을 위한 환경 조직, 수용성, 반응성의 부모역할 영역 내용을 보강하여 예비부모의 지식과 능력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서, 아동기 주양육자가 부모일 때 부모역할 인지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것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미경(2004)에서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양육되어온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자신의 자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양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Couchenour & Chrisman, 2000; 박화윤·최계숙·마지순, 2002)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성장과정에서 인식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균형적인 부모역할이 대상자인 자녀의 부모역할 인지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종혜(2005)의 연구에서 아직도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과 수행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책임감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고, 양육을 더 담당하여 부모역할의 불균형이 여전하다고 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많은 현 사회는 주 양육자가 조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 모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아동들이 편향적이고 왜곡된 부모역할 인식을 갖지 않고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부모가 되기 전 정책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와 대상자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부모역할 인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옥분 외(200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특성과 부모역할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표상은 부모역할 인식 총점과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

고, 권미경(2004)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친밀할수록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혁준(2008)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관계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이며, 아동의 최초 환경은 부모이자, 부모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사회화를 형성한다고 한 것과 같이, 아동기부터 부모님과 친숙하고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성장할수록 사회화의 한 부분인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없고, 출산의도가 없는 경우에 부모역할 인지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본 연구결과는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던 권미경 외(2006)에서 부모교육 경험이 있었던 대상자의 부모역할 인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 정옥분 외(2008)에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미래의 부모 역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는 권미경 외(2006)의 연구에서 실제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로서 부모역할이 현재 직면한 문제이며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미혼여성은 부모교육을 통한 지식이나 양육의 계획 없이 부모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할 기회가 적어 돌보기 수행능력, 반응성, 민감성, 수용성의 대부분의 요인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유계숙과 정현숙(2002)의 연구에서 임신과 출산이전에 부모로서의 자아상이 형성되는 때부터 부모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병래(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교육은 이미 부모가 된 사람에게 실시하는 치료적 입장보다는 예비 부모인 청소년들이나 미혼남녀 등에게 실시하는 예방적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부모상과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김은주(2006)의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출산 계획에 따른 부모역할 동의정도에서 자녀출산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자녀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다양한 미혼여성 연구대상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을 시사한다. 또한, 권미경(2004)의 연구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자녀양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결혼계획이 있다’고 대답한 대상자에서 부모역할 인지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요인별 유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 부모역할 인지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부모교육을 실제로 받은 경험은 없지만,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부모교육에 관

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어 이러한 부모역할 관련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 차이가 희석된 것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대상자들이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 성장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피드백은 과하게 받는 반면 정서적인 요구에 대한 피드백은 적절히 받지 못해 본인이 불충분하다고 느꼈던 이상적인 부모역할 내용인 발달을 위한 환경조직, 자극제공과 참여, 민감성 등의 요인 위주로 응답한 것일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음에도 타당도 분석에서 추출된 요인별 문항 구성이 대학생과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 것은 8~10년 전에 수행되었던 선행연구와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연구대상이 두 개 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한 개 대학의 평생교육원 수강생인 직장인을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가 권미경(2004)의 연구와는 척도 자체와 요인분류 기준에서, 권미경 외(2006)의 연구와는 도구의 문항 수는 같으나 요인에 따른 문항 구성과 연구대상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위요인별 점수와 일반적 특성 및 부모관련 특성에 따른 전체척도와 요인별 점수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부모역할 인지를 본 도구가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후속 타당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권미경 외(2006)에 의해 개발된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다양한 대상자들에 적용하기 위해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부모역할 인지 도구는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타당도의 경우 선행연구와 같이 일곱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 누적변량 또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요인별 문항 구성에서 선행연구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대상인 미혼여성의 부모역할 인지는 아동기 주양육자, 부모와의 관계, 부모교육 경험 유무, 출산 의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대상에 대하여 타당도 검증을 통한 부모역할 인지 도구의 문항과 요인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연령 계층, 성별, 문화적 배경 등을 가진 연구대상에 따른 부모역할 인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 특성 및 부모관련 특성에서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요인을 포함해 반복연구를 실시하여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지 확인이 필

요하다. 넷째,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의 역할이 달라지므로, 발달단계별 부모역할 인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차별화된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산율 극복에 기여하고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역할과 부모됨의 중요성 인지를 위해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그리고 남성을 위한 차별화 된 부모교육의 정책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의 대상별 그리고 통합적인 유연한 운용과 부모역할의 평등한 수행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이 남성에게도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예비교육이 바람직하다. 둘째, 올바르게 바람직한 부모역할의 인지와 습득을 위해 대중매체에서 비추어지는 부모역할을 분석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 프로그램들을 심의하는 과정에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이 자녀 교육과 경제적 지원에 치우치지 않고 좀 더 질적이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자녀의 교육비용 감소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전 생애주기 발달적 관점에서 자녀의 교육에 과도한 집중을 지양하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위한 균형 있는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가족생활교육에서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주희(2007).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따라하는 통계분석. 서울: 크라운출판사.
- 권미경(1995).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도움,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연구. 최신의학, 38(7), 120-130.
- 권미경(2004). 대학생의 부모역할 인지에 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0(4), 413-422.
- 권미경·방경숙·김남선·안혜영(2006). 영아 어머니의 부모역할 중요도에 대한 인식. 아동간호학회지, 12(2), 170-179.
- 김은주(2006). 여대생의 부모기 인식, 부모됨 동기 및 부모역할 동의. 아동간호학회지, 12(1), 89-95.
- 김조자·김수지·박지원·유지수·정영혜·신경립(2002). 간호연구. 서울: 수문사.
- 나종혜(2005).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 제안: 변화하는 부모역할 개념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11-421.
- 문혁준(2008). 부모-자녀 관련 국내학술지 논문의 연구 동향. 아동학회지, 29(2), 15-31.

- 박화윤·최재숙·마지순(2002). 부모역할, 자녀양육과 양육태도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아동학회지, 23(5), 65-76.
- 유계숙·정현숙(2002). 부모됨의 의미와 동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3), 39-47.
- 이민식·김중술(1996). 부부 적응 척도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29-140.
- 이병래(2003).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유아교육연구, 23(1), 133-152.
- 이송은·박성연(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수행귀인 및 부모역할 인식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 인간발달연구, 19(2), 131-149.
- 이은옥·임난영·박현애(1998). 간호, 의료연구와 통계분석. 서울: 수문사.
- 장영희·정미라(2006). 결혼, 자녀, 여성취업에 대한 예비부모세대의 태도분석. 육아지원연구, 1(2), 133-154.
- 정옥분·임정하·정순화·김경은·박연정(2008).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됨의 동기 및 부모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4), 67-91.
- 정충영·최이규(1997). SPSS를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허영립(2007). 남녀 대학생의 예비 부모됨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7(2), 45-65.
- Azar, S. T. (2002). *Parenting and child maltreatment*.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uchenour, D., & Chrisman, K. (2000).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together for young children*. Albany, NY: Delmar.
- Crockenberg, S. B.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Gilbert, L. A., & Harris, G. R. (1983).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working people: Development of the comprehensive meas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203-212.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67-175.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12).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6th ed.). Boston: Allyn & Bacon.

·논문 접수 9월 28일 / 수정본 접수 12월 12일 / 게재 승인 12월 21일

·교신저자: 지연경,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초빙교수, 이메일 y.chee@ewha.ac.kr

Abstract

Valid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ception of Parental Role Inventory in Non-parent Women

Myung-Ock Chae So-Youn Yim Yeon Kyung C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ception of Parental Role Inventory developed for use by nursing professions (Kwon et al., 2006), and to examine differences in perception by sociodemographic and parenting-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non-parent women. Data were from 204 unmarried women with no children in Seoul (Age $M=25.1$, $SD=4.47$).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ity were examin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eans of factor scores of the original and the present scales were compared with t -tests. Differences in perception were examined using t -tests and ANOVA. Th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for the Inventory (33 items) was .92 in this study. Factor analysis yielded seven factors (caring performance ability, responsibility, knowledge related to caring, sensitivity, environmental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acceptance, provision of stimulation and involvement), explaining 62.3% of the total variance. Perceptions of parental role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primary caregiver in childhood, relationship quality with parents, experiences in parent education, and intention to give birth. The current analysis identified the same factor structure as the original Inventory, but with different items for each factor. Further tests for the validity of the Perception of Parental Role Inventory along with efforts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appraisal of the importance of parental roles are needed.

Key words: parental role, non-married, women, reliability, construct validity